티베트 고대 불교 패엽경 복원 '박차'

1천여 권 필사본 존재 확인
2006년부터 복원 사업 착수
패엽경 스캔으로 디지털화
맞춤형 보관함 등 장비 마련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에 전승돼오는 고대의 불교필사본들에 대해 전통기법과 첨단과학을 함께하는 복원사업이 진행돼 화제다. 6월 8일 중국 '신화통신'은 티베트에서 진행되는 고대 불교 경전 복원 사업을 보도했다.

현재 티베트에 전해오는 고대의 불교 필사본들은 고대 인도와 티베트의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자료는 종려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패엽경 필사본들이다. 이 필사본들은 인도불교의 마지막 시대에 제작되어 티베트로 전해된 것으로 현재 1천여 권이 넘는 필사본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낱장으로만 약 6만 장이 넘어가며 세계에 현존하는 고대 패엽경 필사본의 60~80%를 차지한다. 패엽경 필사본들은 티베트의 건조한 기후와, 필사본들을 한 권씩 보자기에 싸서 서가에 보관하는 티베트의 전통 보존법 덕분에 잘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다양한 이유로 경전들이 흩어지거나 훼손되면서 대대적인 보존과 복원이 필요하게 됐다.

노르부 링카 고서 조사팀의 규메출팀 팀장은 2006년부터 티베트의 패엽경 필사본의 수집과 복원 및 보호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6년간 패엽경을 수집하기 위해 티베트 전역, 총 1만 7천여 km를 여행했다. 패엽경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라면 사찰, 유적지, 개인가정을 막론하고 방문했다"며 수집 당시의 고충을 전했다.


라싸의 티베트 박물관에서 규메출팀 팀장이 종려나무 잎 경전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출처=신화통신

규메 팀장은 "대부분의 필사본 상태는 완벽하지만 곰팡이나 벌레로 훼손되거나 아예 썩어버려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이 경우엔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수리하고 있다. 이후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패엽경을 스캔하고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데이터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전 티베트의 문화재 보호 부서는 예산 문제로 모든 보호 부서가 기술 실험실과 유물 복원실을 공유했다. 그러나 2013년 티베트 문화유적 특별예산이 편성되면서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이상의 문화재 보호와 과학적인 연구 장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옛 문헌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보관함과 환경 모니터링 장비도 마련했다.

연구팀은 "옛날에는 훼손된 필사본을 단순히 다시 제본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지금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종려나무잎을 한 장씩 분리하고 찢겨진 곳들을 수리한다"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되어 글자가 흐릿한데다 한 번의 오역이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헌과 상호 비교하며 분류한다"며 복원과 연구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연구팀을 이끄는 규메출팀은 티베트 전역의 6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티베트의 서예와 고대문헌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 중 일부는 선생님이 되었고 티베트의 지역 문화의 새로운 계승자가 되었다. 그는 "지혜와 근면, 노력을 통해 선조들이 보존한 문화유산이 현대 문명사회에서 계승, 보호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불교 중국화 시도…종교 자유 해쳐"

인디아웨스트, 중국 공산당 불교 수출화 시도에 우려

종교 ·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화(中國化)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불교는 중국의 토착 종교"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디아웨스트(India West)는 6월 13일 "중국 공산당이 불교를 인도에서 기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중국으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중국의 토착 종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2021년 12월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 공작회의'에서 중국 중심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9가지 임무를 지시했다. 종교를 중국화하고, 신도를 당 주위로 단결시키며,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당국의 경제적 · 정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종교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불교에 대해서도 강력히 통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네팔 정부의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원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나라의 불교 유적지와 중국의 불교 유적지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디아웨스트가 중국 정부의 "불교는 중국의 토착 종교"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출처=인디아웨스트

인디아웨스트는 "중국은 풍부한 불교유산을 활용해 전 세계 불교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등 불교를 활용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독특한 형태의 외교를 채택했다"며 "세계 불교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디아웨스트는 "중국의 이 같은 종교의 중국화가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전 세계 불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쇼핑몰 12m 대형불상서 봉축법회

인도네시아 청년불자회 주관으로
5월 31일~6월 4일, 웨삭데이 법회
'중도의 화합' 주제로 대중 행사도

지난 6월 7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남방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 축제'를 보도했다. 올해 웨삭 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렸다.

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부처님을 경축하며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트리수치 웨삭(Trisuci Vesak, 3가지 청정함,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위한 행사였다. 올해 웨삭 축제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의 대형 쇼핑몰인 뚠중안 플라자에서 봉행했으며 '중도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일련의 행사를 마련했다.

청년불자회 관계자는 "트리수치 웨삭을 위해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묘사한 디오라마와 아쇼카왕 석주를 제작했다"면서 "특히 높이 12.3m에 달하는 대형 불상은 인도네시아 실내에서 가장 높은 불상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망과 발원을 적을 수 있는 서원 나무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였다"면서 인도네시아의 문화, 사회 종교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동자바 전통 춤, 서자바의 전통악기 앙클룽(Angklung) 연주, 터키의 수피 춤, 중국의 장갑 인형극, 사자 춤 등 매력적인 문화 공연으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의 대형 쇼핑몰인 뚠중안 플라자에서 웨삭데이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인도네시아 청년불자회

수라바야 시장 칵크 에리는 "수라바야는 청년불자가 이끄는 곳이다. 어디로 향할지 알 수는 없지만 수라야바의 미래는 모두 청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연설했다. 인도네시아 제22대 종교부 장관 루크만 하킴 박사는 "청년불자회에 의해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친숙한 매체를 통해 종교적 가치가 어떻게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며 축사를 전했다.

청년불자회는 "일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이 축제는 종교 간, 문화 간 협력을 위한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특히 수라바야와 그 주변 지역 내에서 차이 속에서 관용을 확립하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법회 의의를 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청년불자회는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불교 단체를 설립해 청년 불자에게 전법하고 포교사를 양성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니 정부, 보로부두르 관광 산업 확대

관광부 장관 "수년 내 2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사원인 보로부두르 일대 관광 산업과 관련한 대통령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6월 13일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광부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보로부두르 관광 산업을 위해 '단일 목적지 관리 조직에 대한 대통령 규정'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로부두르를 '제2 발리'로 육성하겠다며 '최우선 순위 목적지'로 선정하고 인프라 개발, 관광 명소 개발, 마케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까지다. 당국은 이번 '단일 목적지 관리 조직에 대한 대통령 규정' 마련을 통해 보로부두르 사원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디아가 장관은 "아세안(ASEAN) 국가의 불교 인구는 4200만 명에 달한다"며 "보로부두르는 앞으로 수년 안에 2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세계 최대 사원 보로부두르.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240만 명의 아세안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지난 2021년 52만 8226명보다 큰 폭 증가한 수치다. 당국은 현재 2023년 내 850만 명의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보도부두르 관광 산업을 발판 삼아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광산사 성운대사 입적 후 첫 번째 책!
다시 원화한 인생을 열다
빈곤하게 태어나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나 스스로 배우며 인생을 개척해 온 성운대사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인생 여정과 함께 들려준다.
성운대사 지음, 이승준 옮김/사륙배판/208쪽/값 16,000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천도재와 49재 여법하게 지내기!
영산재·각배재의범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정판!!
편찬 해사/사륙배판/양장/3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